

있기 때문이다.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하면 본인이 수련하지 못하고 수련할 수도 없어 당신이 종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회는 여전히 이러하기에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하면 그가 수련해서 좋고 수련하지 않더라도 그는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인즉 사회에 유익한 것이다. 정신병자는 그 자신의 의식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할 수 없다. 우리는 의식이 똑똑한 사람을 제도하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준다 해도 내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게 된다. 그가 연마하든지 연마하지 않든지, 그는 더욱이 우리의 규정인 불이법문(不二法門), 이것저것을 섞어 연마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지 못한다. 부처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인데 그가 조건에 미흡하다면 제도할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꼭 배우라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가 공을 연마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때에 가서 그는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데 이것은 확실하다. 그는 속인이기에 병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는 어쩌면 연공장에서 연공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

제자: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하지만, 저는 업장(業障)이 아주 심한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사부: 이 역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날의 인류사회 사람은 모두 업이 구르고 굴러서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력이 이미 매우 크다. 또 사람만이 이렇게 큰 업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생(轉生)할 수 있기에, 동물·물질·식물·고층 공간의 생물·저층(低層)공간의 생물로 전생할 수 있다. 육도윤회(六道輪迴)라, 모두 전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德(더)와 업력을 갖고 간다. 지금의 사람은 德(더)의 성분이 작고 업력이 크다. 그렇다면 사람만이 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흙까지도 모두 업력이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전에 중국에서 농민들이 밭에서 일할 때, 손을 다치면 흙가루를 집어 뿌리기만 해도 나았는데, 흙가루를 조금만 뿌려도 나았다. 지금은 당신이 감히 흙을 만질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만지지 않아도 파상풍(破傷風)에 걸린다! 도처에 다 업력이다. 물질에 업력이 있고 식물에 업력이 있으며 동물·사람, 도처에 다 업력이다. 그러므로 고층공간에서 볼 때, 인류사회는 검은 물결이 파도친다. 왜 전염병이 있게 되는가? 아주 심한 전염병은 바로 그 검은 물결로서 밀집도가 대단히 큰 그 업력

덩이가 굴러다닌다. 이 지방에 굴러오면 그것은 곧 전염병으로 나타난다. 지금 인류의 업력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방금 내가 말했지만, 빗진 몇 개의 목숨을 깨끗이 갚고 다시 수련하려고 한다면, 아마 때를 놓쳐 당신은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우주 중의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련하여 돌아가려 함인데, 진정으로 당신을 생기게 한 그곳으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속인사회에서 속인의 정(情)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수련한다면 나의 아내 자식·부모 형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내가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의 각도에서 인식한 것이며 현존의 기초에서 생각한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제고되고 층차가 제고된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하나의 경지 중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이치를 알려주겠다. 누가 당신의 진정한 육친인가? 내가 여기에서 당신들의 가정 관계를 교란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도윤회(六道輪廻)할 때, 당신이 금생에는 사람이지만, 내세에는 동물이고 식물이

있든지 모두 책임질 수 있다. 그法輪(파룬)을 내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만 넣어 줄 수 있는가? 내가 곁에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넣어 줄 수 있다. 내가 당신 여기에 있지 않아도 역시 당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두 번째 문제는 정신분열증이다. 가벼운 것이나 심한 것이나 우리는 모두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가 연공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 이 공법은 다른 공법과 같지 않다. 우리는 본인을 제도한다. 본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우리 공은 본인의 몸에 주어 바로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하며 바로 당신 자신을 제도하는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여태껏 없었다. 역사적으로 밀종이든, 다른 종교든 모두 당신의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했다. 이것은 내가 밝혀 놓은 한 가지 천고의 수수께끼이다. 당시 이 수수께끼를 밝혀낼 때 정말로 방해가 대단히 컸다. 하지만 장래에 세계가 다 아름답게 변한 후, 많은 부처가 다시금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제도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들 역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할 것이다. 내가 이 방면의 것을 변하게 했으며 돌려 세워 놓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도덕 안정에 직접적인 좋은 점이

한 글자가 모두 나의 법신 형상이다. 매 한 글자가 모두 부처의 형상이다. 나는 무수한 법신이 있으며 나의 법신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는, 아미타불은 2백만 법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의 법신은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으며 셀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나는 다 책임질 수 있으며 전 인류라 해도 나는 다 책임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다만 수련인에 대해서만 작용을 일으킨다. 수련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인 일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련하며 염(念)을 움직이기만 하면 나의 법신은 곧 알게 된다. 또 한 문제가 있다. 당신이, 나 지금의 이 신체를 보면 속인의 육체로서 곧 이만큼 크다. 그러나 한 엇갈린(錯開) 공간에서 당신이 나의 신체를 보면 나보다 훨씬 높다. 매 한 공간에서 나의 신체는 하나가 하나보다 높으며, 하나가 하나보다 크며, 하나가 하나보다 큰바, 나의 가장 큰 신체는 크기가 그야말로 말할 방법이 없다. 많은 수련생이 순간적으로 나의 무척 큰 신체를 보았다. 그는, 사부님, 저는 사부님의 발가락 아래에 서서 사부님의 발가락 위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신체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전체 지구가 모두 여기에 있기에 당신이 어디에

며, 한 생 또 한 생 이러했기 때문인데, 매 한 생, 매 일세(一世), 당신은 부모가 얼마이며 아내 자식·자매 형제가 얼마인가? 당신은 당신의 기나긴 생명의 흐름 속에 당신은 다 셀 수도 없다. 또 사람인 것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바로 사람은 너무나도 깊이 미혹되었다! 당신의 진짜 부모는 우주에, 당신이 생긴 그곳에 있으며 거기에 비로소 당신의 부모가 있다. 생명은 두 가지 내원(來源)이 있다. 하나는 방대한 물질운동 하에서 생긴 생명이고, 하나는 우주의 물질운동 하에서 생긴 유형적인 생명으로서 그 자신은 마치 사람이 임신한 것과도 같이 생명을 낳는다. 이러한 생명이라면 그는 곧 부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정한 부모는 지금 바로 거기에서 당신을 보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되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미혹되어 있으면서 또 육친이 모두 여기 있는 줄로 생각한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본귀진(返本歸眞)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한 사람이 부처수련을 하려는 이 일념(一念)이 나오게 되면 비록 그가 수련할 기연(機緣)이 없다 해도 그 또한 부처수련의 선과(善果)를 심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바로 그에게

서 나타난 이 일념(一念)이 너무나도 진귀해서다!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런 환경 중에서, 이런 미혹된 환경 중에서, 여전히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부처 수련을 하여 착해지려는 마음이 있어서다. 그럼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모두 당신을 돕고 방법을 내어 당신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람에게 이 일념(一念)이 있으면 시방세계가 진동하고 금처럼 빛나 누구나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수련하려고 하면 바로 이러하다. 업력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방법을 취하여 당신을 소업(消業)해 주어야 한다. 소업에도 무조건 없애줄 수는 없으며 당신에게 전부 없애 줄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는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불교 중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한 생으로는 수련 성취할 수 없고, 몇 생을 윤회해야만 비로소 수련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단번에 그렇게 많은 업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수련하려 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내어 당신으로 하여금 금생금세에 수련 성취하게 하며, 곧 이 한 세(一世)에 원만(圓滿)을 이루게끔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이가 특별히 많거나 혹은 수명이 아주 짧아 늙었다면, 당신은法輪(파륜)을 갖고 천수를

사부: 그때 당신은 밀종(密宗)을 연습했으며 진정하게 수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꿀 때 땅 위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꿈은 모두 사람에 대한 검증으로서 당신의心性(썬썬)이 착실한지, 착실하지 않은지를 본다. 어떤 수련인은 낮에는 괜찮게 할 수 있으나 꿈속에서는 잘못한다고 한다. 그가 사상 깊은 곳에서 아직 착실하지 않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가 착실한지, 착실하지 않은지를 검증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잘하지 못함이 나타나도 속상해하지 말고 반드시 잘하겠다며 중시하면 장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제자: 리(李)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 그들에게 모두法輪(파륜)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에게도法輪(파륜)을 넣어 줘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신이 비정상인 사람은 수련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머리에 가벼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사부: 나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말하겠다. 나는 말했다. 이 책 속의 매 한 글자에 모두 나의 법신이 있고 매

아닙니까, 元神(웬선)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부: 당신이 책을 얼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대법을 수련하지만, 밀종(密宗)의 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생각한 것은 밀종이지 대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는다. 생명위험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말한다. 당신의 수련과 관계없는 일은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인즉 보증하고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수련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부딪히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정말로 생명을 잃었다면 어떤 문(一門)에서도 모두 당신을 상관하지 않았고 전혀 수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로 말하면 그것은 명을 갚을 것을 주장한다. 일생에 수련 성취를 못하면 명을 갚은 후 다음 생에 이어서 수련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에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나의 제자라면 절대적으로 생명위험에 부딪히게 할 수 없다.

제자: 당시 저 자신은 꿈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한 후 전생하게 될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곧 이것을 지냈으므로 다음 한 차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정법을 수련하면 나는, 당신의 업력을 당신이 수련할 수 있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없애주는데, 당신에게 이런 정도로 없애준다. 다 없애주어서는 안 되며 조금도 갚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갚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갚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당신의 수련하는 길에 안배해 놓는데 모두 당신 자신의 업력으로서 바로 당신의 수련 중에서 제고가 필요한 부동한 층차에 안배해 놓는다. 그것은 당신이 心性(썬썬)을 제고할 때 생기는 한 고비와 한 난(難)으로 된다. 층차 제고가 필요할 때, 당신은 일부 번거로운 일에 부딪히거나 혹은 신체의 어느 곳이 아프다. 그렇다면 이는 모두 당신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에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이런 문제를 속인과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는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담담하게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한 고비, 이 한 난(難)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간주하여 내려놓으면 당신은 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일부 사람은 수련함에 그는 난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

실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크다고 느낄수록 그것은 더욱 높고 크게 변하며 당신은 더욱 작아진다. 당신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청산(靑山)을 남겨 두었거니 땔나무 없을까 봐 걱정이라, 사부가 있고 법이 있는 한 무엇이 두려운가? 그것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려놓기만 하면 당신의 난(難)은 작게 변하고, 당신은 크게 변해 한걸음에 넘길 수 있게 되는바, 그 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보증하고 이리하다. 넘기지 못함은 실질적으로 그가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혹은 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서, 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사람의 그 한 발자국에서 물러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넘기지 못한다.

제자: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사부님의 책을 읽고 사부님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法輪(파

인다. 당신이 이런 데에 익숙해졌을 때 당신이 천천히 이렇게 보아 내려가고 차츰 습관이 되어 시간이 길어지면, 당신은 점차 당신이 정말로 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잘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어떤 도가에서는 제자를 훈련할 때 특별히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 그는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의 공능을 훈련했다. 눈앞에 사과가 없지만, 사부가 그에게 거짓으로 당신 눈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는 어떤 사과라고 말해 준다. 실제로는 사과가 없지만, 당신이 뱀새를 말도록 훈련한다. 그런 다음 다시 사과가 어떤 모양인지 느껴 보도록 한다. 바로 이렇게 그를 훈련했다. 모두 대뇌 속에서 영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똑똑히 말하지 못한다. 아무튼, 당신이 생각한 그것은 움직이지 않으나, 당신이 본 그것은 움직인다.

제자: 어느 한차례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부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생각한 것은 밀종(密宗)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경건하게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 제가 끝장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신은 이미 보았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흰빛이 물체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 또한, 당신이 때로는 보려고 하면 곧 보게 되는데, 실제로 당신은 정말로 보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환각으로 여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만, 그는 상상이라고 여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의 눈이 물건을 볼 때 당신은 이미 습관이 되어 이것은 눈이 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을 해보았는가. 당신이 본 어떤 것도 시신경(視神經)을 거쳐 당신의 대뇌(大腦)로 전도되어 영상으로 반영된 것이고, 대뇌에 반영되어 어떤 물체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신의 눈은 단지 사진기의 렌즈 이 러한 것일 따름이며 그것 자체로는 물체를 분석, 반영할 수 없고 대뇌가 영상을 반영한다. 기왕 대뇌가 영상을 반영한다고 하니, 우리가 천목을 통하여 본 것과 사람의 생각인 상상은 모두 대뇌에 반영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두뇌가 생각하는 것이고 본 물건도 대뇌에서 영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상상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같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하여 보게 되는 그것은 것처럼 똑 똑할 수 없고 그것은 움직이지 않으며 그것은 고정된 화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하게 본 것은 움직

륜)은 당신들 스스로는 연마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사부가 친히 당신들에게法輪(파륜)을 넣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국에 가서 사부님께法輪(파륜)을 넣어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밖에 하나는, 만약法輪(파륜)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이法輪(파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부: 많은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걱정한다. ‘우리는 이 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사부의 강의를 듣지 못하고 사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法輪(파륜)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는데 사부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 많은 사람에게 모두 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이미 책에 써넣었다. 당신은法輪(파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당신이 진짜로 수련하는데 내가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을 해치며 사람을 사지(死地)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 그럼 나는 응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기왕 내가 이렇게 한바, 나는 당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많은, 근기(根基)가 아주 좋은 사람은 이 책의 매 한 글자가 모두法輪(파룬)임을 보아낼 수 있다. 공간은 같지 않기 때문에 심층(深層) 공간으로 더 내려가서 본다면 매 한 글자가 모두 나의 법신이고 모두 부처의 형상이며, 편방부수(偏旁部首)마저도 모두 단일한 부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부처의 위력은 아주 큰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들고 보면 왜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당신의 눈이 나쁘지만, 왜 이 책을 보면 글자가 더욱더 커지고 눈도 피로하지 않는가? 왜 당신이 이 책을 보면 기적적인 변화가 발생하는가? 왜냐하면, 그 글자는 법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일체 일을 해줄 수 있으며 그는 당신에게法輪(파룬)을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법신이 있어 당신을 책임져 주는데, 이 모든 일을 그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 본인을 만나지 않아도 역시 얻을 수 있다.

감각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 그는 아마 민감하여 아랫배가 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또 한 곳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온몸 곳곳에서 다 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을 했는데,

을 연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장생수명(長生修命)하게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으며, 공능을 가지(加持)하는 등등이 있는바, 동작은 일정한 역할을 한다. 닦는(修) 것이 선차적이고 연마(煉)하는 것은 후차적이며, 닦는(修) 것이 제1위이고 연마(煉)가 제2위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한 문(門)에서 원만에 이르려면 모두 닦아야(修) 하고 연마(煉)해야 한다.

제자: 저는 연공할 때 어떠한 현상도 보지 못했고 다만 흰 빛만 보았는데, 사부님의 모습을 보겠다고 생각하자 보였는데 환상이 아닙니까?

사부: 나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눠 말하겠다. 천목(天目)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아마 더욱 높은 층차로 돌파하는 이런 하나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성이 아주 높고 대단히 높게 수련될 수 있는 사람 일수록 그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 빨리 수련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생 중에 미혹되어 있고 미혹 속에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생해도 그는 곱절로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은 같지 않은 것으로 높게 수련하는 것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당신은 당신이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마하지 않으면 곧 멎는 것과는 같지 않다. 우리가 연마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넣어 준 일체 기제(機制), 체내의 것과 체외의 기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당신은 이 기제를 강화하고 있다. 왜 나는, 이 손은 관정(灌頂)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내보내고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며, 손바닥이 신체를 마주 보게 하여 움직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체외에 넣어준 그러한 기제(치지)를 당신이 도와 움직일 때, 당신의 손은 연공하는 동안 에너지가 아주 커서 기제(치지)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이 기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疊扣小腹(테커우샤오푸)는 단전의 기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당신이 쪽 늘일 때는 운동의 기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공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연공할 수 있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런 기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공은 원만(圓滿)을 이루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아니며 원만(圓滿)을 이루는 한 가지 보조적 수단이다. 그러나 연공 역시 아주 중요하다. 이 한 문(門)에서 수련해 낸 것인 그것의 모양이 변치 않음은, 당신 이 한 세트의 것과 당신의 동작과 또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는 또 한 세트의 술류(術類)의 것이 있고, 또 생명

이후에는 주의하도록 하라.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가 아홉 개 法輪(파룬)을 연마한다고 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넣어 준 法輪(파룬)은 곧 하나이다. 이 法輪(파룬)은 위력이 비할바 없으며 그는 무한하게 분체(分體)할 수 있다. 수련의 초기에 당신의 신체를 조절하기 위해 내가 당신 체외에 넣어 준 法輪(파룬)은 몇 백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도처에서 모두 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돌고 저기에서 돌고, 아이고, 온몸에서 모두 돌고 있으며 도처에서 모두 돌고 있다고 한다. 당신의 신체를 정화해 주고 동화해 주어야 하므로 나는 우리 이런 공의 특성으로 당신을 조절해 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곳곳에서 모두 法輪(파룬)이 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많아서 다 셀 수 없다. 당신은 아마 아홉 개가 있다고 느껴, 아홉 개가 있다고 했을 것이다. 나는 아주 많은, 밖에서 사용하는 法輪(파룬)으로 당신의 신체를 조절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것은 모두 초기의 것이다. 느끼는 사람은 그가 순응하여 당신 신체의 일부분으로 되면 감각이 없어진다. 당신의 심장이 뻐다

고 하여 당신은 평소에 그것이 뛰고 있음을 아는가? 당신은 손으로 만져서야 알 수 있다. 당신의 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아는가? 당신의 혈액이 흐르며 돌고 있는데 당신은 아는가? 그가 당신 신체의 일부분으로 되면 감각이 없으며 느껴지지 않는다. 초기에는 감각이 없을 때도 있으며 초기에 아주 많은 일부 사람은 감각이 없다. 하지만 이후 수련 중 당신은 아주 많은 감각이 있을 수 있다. 오로지 당신이 수련만 하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책임질 것이다.

가장 뚜렷한 것은 당신 신체가 아주 빨리 정화된다는 것이다. 중국 대륙의 아주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면 너무나도 신기하다! 연마하기만 하면 병이 없어진다.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 그는 병을 치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그는 대법이 좋다고 생각하여 연마했다! 결국, 병이 나았다. 그러나 일부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왜 좋지 않은가? 그는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하면 병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병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품고 와서 연마했다. 그러므로 그의 병은 제거될 수 없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 당신이 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역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신체는 마땅

검증이며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확고한지 확고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다. 당신이 확고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나의 법신은 당신에게 이 업(業)을 없애 줄 것이다. 이런 사상업력은 당신의 수련을 직접 교란하며 당신의 깨달음에 직접 영향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문제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며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면 잘 분별해야 한다.

제자: 연공 문제인데, 동작과 心性(썬썬)의 관계에서 동작을 강화하면 心性(썬썬)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까?

사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동작 역시 원만(圓滿)을 이루는 하나의 관전적인 면이며 역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 공은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것으로 당신이 연공하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거나, 일하거나, 밥을 먹어도 법은 모두 당신을 연마하며 24시간 끊임없이 당신을 연마하여 당신의 남은 생의 연공시간을 단축하게 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원만에 이르도록 한다. 만약 이렇게 않다면 금방 어떻게 당신을 금생에 원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연공하는 동작은 실제로 다른 공법에서 연마하면 공이 자라고 연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아주 많았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의 사상반응은 아주 격렬했다. 아주 격렬하게 욕을 했는데 그가 배척하려 해도 배척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나는 사부님께 죄송하다! 사부님을 욕하기까지 하다니, 나의 업력은 너무나 크기에 차라리 나는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칼로 목을 베었다. 물론, 당신은 시험하려 하지 말라. 그는 어떻게 해도 베어지지 않았으며 아프지도 않았고 베었지만, 출혈도 없었다. 화가 난 김에 그는 뛰쳐나가 보도원을 찾아 물어보았다. 그는 ‘나의 이 머릿속에서 늘 사부님을 욕하는데, 나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보도원이 보고 나서 그를 마주하고 법을 읽자 그는 아주 좋음을 느꼈다. 나중에 나에게 물어와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실 당신의 업력이 욕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떠한 심리적 부담도 갖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主意識(주이스)를 분명히 하여 그것을 배척하고, 깨끗이 배척하여 그것이 욕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배척하고 억제하면 나의 법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는 다 알고 있으며 당신이 욕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다. 이 역시 당신에 대한

히 업을 갚아야 하기에 마땅히 병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수련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당신의 병을 없애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로지 당신이 병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연마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병을 고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예전에 우리는 줄곧 정신병 환자와 병이 위독한 사람을 입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이 위독한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아무리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해도 그는 내려놓지 못한다. 그의 생명이 거의 끝나게 되었는데 그가 그의 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모두 병 때문이므로 당신이 그에게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는 역시 내려놓지 못한다. 어떤 때 그는 입으로는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정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함은 요구가 있기 때문인데, 아주 엄격한 요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이 일념(一念)을 개변해야만 우리는 당신에게 해줄 수 있으며, 이 일념을 개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일념을 개변하면 그는 곧 속인이 아니고 이 일념을 개변하지 못하면 곧 속인이다.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구함이 없어야만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며 아주 좋다고 여겨 한번 연마해 봐야겠다고 온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공을 연마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와서 연마했는데 그는 오히려 무엇이든 다 좋아졌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아주 높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의 인식과정이 있는 이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 어떠한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와서 수련해서는 안 된다.

제자: 스승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법륜』에서 보면 그 기문공(奇門功)은 연마한 공을 꺾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공은 연마한 후에 10분의 8을 꺾어서 그 세계를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법을 연마해도 역시 꺾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사람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장래 부처가 됨에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모두 연마해 내야 한다.

면 당신의 사상을 정화(淨化)해야 하는데, 생생세세에 생긴, 사람을 욕하는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라든가, 형성된 관념, 각종 업력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것을 제거해버려야만 비로소 당신의 본성이 나올 수 있다. 당신이 수련하여 그것을 없애버리려 하고, 사람을 욕하는 이런 사상개념을 없애버리려 하면 그것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죽게 되는데 말을 듣겠는가? 그것은 곧 당신의 머리에서 반응하는데, ‘이 모두가 가짜이다, 그를 욕하라, 사람을 욕하라.’라고 한다. 당신이 연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사람을 더욱 욕하는데, 머릿속에서 사람을 욕하는 말, 아주 더러운 말을 산생한다. 내가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업력이고 그것은 사상업이다. 반드시 그것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바로 당신에게 주어 당신 본인이 수련하게끔 한 것으로서, 만약 당신 자신의 사상의식이 명석하지 못해 사람을 욕하는 말이 생기어 마음속이 확고하지 못할 때면, 당신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마저도 그것을 따라가서 연마도 못 하고, 확고하지도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안 된다면 우리 역시 제도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검증하려 하기 때문인데, 당신이 이 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확고한지를 본다. 부처수련은 바로 이렇듯 엄숙하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다.

아무튼, 좋고 나쁨을 나는 모두 말했다. 지금 정교(正敎)도 사람을 제도하기가 모두 어려운데 하물며 사교(邪敎)이라! 어떤 사람은 모델처럼 분장하여 사람들에게 떠받들리고 곳곳에서 떠받들려 돈을 받는데, 사람들은 모두 여전히 그를 믿고 있다. 사람은 아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는가! 법을 얻지 못하면 속기 쉽다.

제자: 사상업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무의식중에 좋지 않은 생각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정법(正法)수련이므로 나는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인류에 대해 책임지며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도 좋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의 머릿속에서 나를 욕할 수 있고, 게다가 또 그에게 믿지 말라며 이것은 모두 가짜다 하며 알려준다. 왜 이런가?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신의 신체에 존재하는 업력 외에 그에게는 또 사상업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물체이든 모두 산 것으로 사상업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 당신이 연공을 하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처는 그가 무엇을 가지려 하면 그것이 있다. 아울러 신통력이 무궁무진하며 그의 분복은 비할 바 없다. 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가 얼마만한 고생을 겪으면 그는 그만한 복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자라난 이 공이 상당히 높은 정도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부처로 수련될 수 있다. 예전에 이것은 우리 수련계에서 대단히 높게 수련된 사람 사이에서만 하는 말이며 속인 중에서는 하지 않은 말이다. 수련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주 높게 수련되어야만 비로소 원만을 이룰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만약 당신이 공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당신이 뭘 가지려 해도 아무것도 없고 당신의 일체 분복이 다 없다면 이는 안 된다. 당신은 수련과정에서 그것을 모두 수련해 내야 한다. 전반 수련과정 중에서 겪은 고생은 바로 당신의 위덕(威德)이다. 고생을 겪으면 공이 자라며 心性(썬쌩)이 제고되면 공(功)이 자란다. 그러므로 장래에 아주 높고 깊은 층차로 수련된 후에 역시 공의 10분의 8을 꺾어내려 당신의 그 과위의 끝없는 분복을 원만에 이르게 한다. 당신 자신의 작은 세계 속을 충실하게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고생을 겪어 수련해 온 것이다. 당신이 수련한 그 心性(썬쌩)의 표준까지도 다 꺾어서 그 속을 충실하게 해야만 비로소 당

신의 분복이다. 그것은 당신이 고생을 겪어서 온 것이다. 남은 그 10분의 2,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과위(果位)이다. 보살의 표준에 도달했다면 곧 보살이고 부처의 표준에 도달했다면 곧 부처이며, 나한의 표준에 도달했다면 곧 나한이고, 더욱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바로 더욱 큰부처이다. 기문(奇門)수련방법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역시 그 자신의 공으로써 복덕(福德)을 원만에 이르게 한다.

제자: 두 번째 문제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저희는心性(썌썌)이 높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거나 저를 업신여기면 마음속으로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데 의하면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하며 업신여김은 모두 德(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화가 났다면 공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연공인으로서 당신이 속인 때문에 화를 낼 때면 이미 속인과 같은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낼 적에 밖으로 내민 것으로 다만 당신이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이다. 돌려보내지 않음은, 당신이 필경 잃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와 같게 대한다면 곧 그것을 돌려보낼 수 있

(涅槃)의 길을 걸었는가?! 정법(正法)을 전함은 쉽지 않으나 사법(邪法)을 전함은 오히려 상관하는 사람이 없다. 상관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며 흔히 정법(正法)을 전할 때면 사법(邪法)이 많은데, 당신이 어느 문에 들어가는가를 본다. 만약 모두 한 문(一門)이고 전하는 것이 모두 정법(正法)이며, 세상에 사법(邪法)이 없이 모두 처리해 버렸다면 사람은 수련하기가 너무나도 쉬울 것이다. 이 법을 어떻게 얻든지 누구나 다 당신 것을 수련하는데, 당신의 이 한 문(一門)뿐이라면, 제자가 당신의 법에 대하여 확고한지 확고하지 않은지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그러므로 흔히 정법(正法)을 전할 때면 사법(邪法)도 전하게 되며, 사람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본다. 사람의 오성(悟性)을 가늠함에, 당신의 수련과정 중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 나를 따라 이것을 연마하자, 나를 따라 저것을 연마하자, 자, 나는 지금 어떤 좋은 공을 배웠다고 하는 등등, 당신을 끌어내어 당신을 검증할 수 있는데, 보증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수련과정 중 당신을 끌어내는 이런 현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있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상관하지 않는가? 법신은 무엇이든 다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상관하지 않는가? 바로 마(魔)를 이용하여

力)을 위해서인데, 모두 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라.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불법을 전함은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으로 돈을 번다면 그는 극악무도한 것이다! 물론 마(魔)는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종교의 가치를 치켜들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해지라는 가치를 치켜들고 인류를 파괴하며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의 심법(心法)을 파괴하는데, 이는 가장 악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물론 어떤 말은 꺼내고 싶지 않다. 바른(正) 것과 사(邪)한 것을 당신은 분별해 낼 수 있으니 스스로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누가 사(邪)하고, 누가 사(邪)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만 이렇게 알려줄 뿐이다. 한 사람이 속인사회에 와서 사람을 제도하려고 한다면 이 일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전체 우주의 신(神)들이 모두 찬성하고 동의를 표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 관련되고, 상하(上下)에 대응되는 인류사회의 매 하나 민족에 관련되며, 많고 많은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인데, 누군가의 머리가 뜨거워져서, 하려고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를 나는 알고 있다. 왜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

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 자식이 나를 형편없이 업신여기고 나의 많은 돈을 사기 쳤는데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당신이 나를 한바탕 때렸고 나는 또 욕을 먹어야 했는데, 나는 욕하기는커녕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사람들은 당신 이것은 아Q가 아닌가?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라고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렇게 높은心性(썬썬)이 없다면 당신은 해내지도 못한다. 그것은 수련자의 굳센 의지의 표현인데, 속인이 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그렇듯 굳센 의지가 없다면 그는 해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가 만약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한 덩이 덕(德)을 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한 덩이 덕(德)을 더 얻으면 당신은 한 덩이 공(功)을 수련해 내게 된다. 그가 당신을 업신여길 때 당신 자신의 업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업력을 갖고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깨끗이 없애버려야 한다. 그가 당신을 업신여겨 당신에게 덕(德)을 주었고 당신은 또 업을 없애버렸다. 당신이 그와 같게 대하지 않았고 마음속이 아주 조용한바, 당신의心性(썬썬) 표준이 높아졌다. 머리 위에心性(썬썬)의

척도가 있는데, 머리 위의 이 척도가 얼마만큼 높으면 공도 그만큼 높다. 당신은 心性(썌썌)이 높아졌고 공도 높아졌으며 당신의 업도 德(더)로 전화되었고 그는 또 당신에게 德(더)를 주었다. 당신은 일거사득(一舉四得)이다. 당신은 그래도 그에게 감사드리지 않겠는가. 정말로 내심에서 우리나라와 그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내가 방금 말했다. 인류사회가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이치는 거꾸로 된 것이다. 높은 층차에 이르면 사람이 집착하는 것은 모두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제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책에서 말한 살생문제입니다. 살생이 아주 큰 죄업(罪業)이라면, 한 사람의 자살을 죄로 칩니까?

사부: 죄로 친다. 지금 이 인류사회는 좋지 않게 되었고 어떤 기괴망측한 일도 다 나타났다. 무슨 안락사(安樂死)를 주장하면서 주사를 놓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한다. 여러분이 알지만, 왜 주사를 놓아 그를 죽게 하는가? 그가 고통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의 고통을 소업(消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내세(來世)에 전생(轉生)하면 몸이 가뿐하고 업력도 없어 아주 큰 행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

든, 모두 상관없다.

제자: 동남아 지역에서 천도(天道)라고 하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전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지금은 말법(末劫)시기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말법시기에 만마(萬魔)가 세상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 마(魔)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당신의 법을 어지럽히지 못하지만, 당신의 법이 말법시기에 들어갔을 때를 기다려, 나는 나의 제자, 제자와 손제자를 파견하여 당신의 절로 출가토록 할 것인즉,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라고 하자, 석가모니 부처는 당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 그는 물론 방법이 없었다. 말법에 이르면 난잡할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한 말법시기는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고, 단지 절(廟)뿐만이 아니라, 인류사회 곳곳이 모두 인류 사업을 파괴하는 일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교(邪教)가 종횡(縱橫)한다! 겉으로는 그 역시 사람에게 착해지라고 하지만 그의 뱃속은 오히려 이런 것을 위하지 않는다. 그는 명(名)을 위해서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고, 그렇지 않으면 한 무리 비합법적인 세력(黑色勢



온 것이며 부동한 층차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치에 따라 말하면 그는 마땅히 그가 떨어진 원래의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이 층차에서 그는 어느 것이 그가 있었던, 떨어진 천국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련할 때 그가 선택하는 방법도 아마 같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아마 인연이 있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부: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생긴 그곳, 당신 원래의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소원은 좋은 것이다. 당신이 지금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당신이 어떻게 되돌아가고, 어떻게 수련하여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바, 다른 것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두 거기에 배열해 놓고 그 부처가 거기에 앉아 있으며 당신이 누구를 선택한다 하여 당신에게 그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수련하여 올라감을 말하자면, 당신이 정말로 높이 수련되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세계에서 당신의 그 세계의 육친을 만날 수 있으며 여기 저기 유람도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느 세계에 있는지는 상관없으며 당신이 시드니에 있든, 혹은 브리즈번에 있

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한창 소업하고 있을 때, 그는 물론 아프지만, 당신이 그로 하여금 소업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죽여 버린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닌가? 그는 업력을 가지고 가게 되며 내세에 그는 업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어느 것이 옳은가? 자살은 또 하나의 죄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안배된 것인데, 당신이 신(神)의 총체적인 전체국면의 순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회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러한 관계가 연대된다. 죽었다면 전반, 이 순서가 신(神)의 안배를 혼란하게 한 것이 아닌가? 당신이 그를 혼란케 했다면 그는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

제자: 부처는 뭘 하려고 생각하면 뭘 한단데, 부처는 마음이 깨끗하고 욕망이 아주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역시 향수할 줄 압니까?

사부: 어떤 사람은 부처는 밥을 먹지 않고 사람의 신체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부처는 이러하다고 여기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수련계의 사람이 한 말을 속인의 사유방식으로 인식할

수 없다. 부처는 사람의 신체가 없다. 분자 이 한 층의 입자 물질로 구성된 사람의 이런 더러운 신체가 없다. 그의 신체의 가장 굵은 과립(顆粒)은 표면이 원자지만, 가장 미세적인 과립은 우주 중의 더욱 미세적인 물질이다. 그의 물질이 미세적일수록 그의 방사성 에너지는 더욱 크다. 불광(佛光)이 널리 비춘다고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부처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부처는 사람의 밥을 먹지 않으며 그는 자기의 그 층차 중의 물질을 먹는다. 그는 또 ‘밥’이라고, 인류의 언어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처 경지 중의 언어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곧 사람의 생각이다.

어떤 속인은, 부처가 된다면 얼마나 멋이 없겠는가,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앉으면 마치 나무토막과도 같다고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부처는 그의 그 천국 세계의 법왕(法王)이다. 우리가 여래라고 부름은 그의 心性(썬썬) 표준 층차의 체현을 가리킨 호칭이다. 그는 실제로 그의 천국의 법왕(法王)이다. 그는 그 세계 속의 무수한 중생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우리 속인들처럼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완전히 자비롭고 선량한 마음으로 관리한다, 모두 그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집에 있는 이 불상 또는 도가의 노자, 원시천존(元始天尊), 기타 불상을 사부에게 청하여 개광(開光)하려 할 때, 가장 좋기로는 당신이 나의 그 책을 들고 하는 것이다. 책에 나의 사진이 있잖은가? 당신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부님, 사부님께서 개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손으로 대연화인(大蓮花印)을 하여 이 책을 받쳐 들고 3초간이면 끝난다. 나의 법신은 불상과 같은 신(神)의 법신을 청해올 것이다. 당신이 만일 아미타불에게 개광한다면 나의 법신은 한 아미타불 법신을 이 불상으로 청해올 수 있다. 이것을 진정한 개광이라고 한다. 지금 종교 중에서 실속 있게 수련하지 않는 화상(和尚), 또 많은 가짜 기공사, 그는 개광을 하지 못한다. 그는 부처를 청해올 그런 위덕(威德)이 없다. 그는 부처인데, 누가 부른다고 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거울을 들고 불상을 비추며 개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상의 눈에 주사(朱砂)를 바르는 사람도 있다. 눈이 빨갛게 되는데, 그는 역시 개광이라고 말한다. 모두 난잡하게 하는 짓이다!

제자: 방금 사람 자체가 부동한 천국에서 떨어져 내려

그것이法輪(파룬)인지 아닌지 사부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나선식으로 돌고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역시 일중 흙의 색깔로, 진흙 색깔과 같았으며 전반적으로 도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오묘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의 구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부: 그法輪(파룬)은 부호를 제외한 외에 그 바탕 색깔은 변할 수 있다. 적·등·황·녹·청·남·자·유색(有色)·무색(無色)으로서 그것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法輪(파룬)은 모두 이런 색깔이 아닐 수도 있다. 또法輪(파룬)이 당신들의 신체를 조절할 때에는 몹시 빨리 돌며 보면 마치 그 선풍기의 날개와 같고, 마치 돌개바람과도 같다. 어떤 때에는 아주 천천히 돌기 때문에 그 속의 구조를 똑똑히 볼 수 있다. 아주 빨리 돌 때에는 보기가 쉽지 않다. 초기에 신체를 조절할 때, 그 자신이 빨라야 하는지 늦어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안다. 이것은 모두 상관없으며 모두 정상적이다.

제자: 대연화수인(大蓮花手印)을 할 수 있습니까?

사부: 대연화수인(大蓮花手印), 그것은 하나의 정인(定印)으로서 바로 고정적인 인(印)이다. 이것이 대연화수인(大蓮花手印)이다(손 자세를 함). 우리가 연공

경지의 표준인지라 아름답기가 비할 바 없다. 그에게는 속인 중의 정(情)이 없다. 그러나 그는 자비(慈悲)가 있으며 더욱 높은 경지, 더 순결한 것이 있고, 그에게는 일체 속인이 가진 것이 다 없다. 그는 더욱 높은 경지에 상응하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급 생명이다. 또 더욱 고급이고 더욱 고급이며 더욱 고급인 생명이 있다. 다 무료하면 죽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는 더욱 아름다운바, 그 세계에 가야만이 비로소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더욱 아름답다. 하지만 당신이 속인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없애 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얻지 못한다.

제자: 왜 기문공(奇門功)은 그 공을 꺾어 내리지 않습니까?

사부: 기문공(奇門功)이 꺾어 내리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는가? 모두 수련해 낸 공으로써 그들의 과위(果位)를 원만에 이르게 한다. 기문수련도 한 가지뿐이 아니다. 기이하고 다양한데 아주 특이하다. 수련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은 수련하는 한편, 이것을 원만에 이르게 하는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는 이 방면에서 자라지 않으므로 그는 꺾을 필요가 없다. 꺾어야 할 사

람은 그의 공이 자람이 빠르다. 그가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수련하는 한편, 복덕(福德)을 원만에 이르게 하므로 그는 자라는 것이 아주 느리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는, 제가 첫날 가부좌를 했을 때 사부님의 법신이 저의 곁에, 저의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은 옷은 검은색이었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료에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색깔이 아닙니다.

사부: 이 역시 부동한 공간에는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도(道)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자색(紫色)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동래(紫氣東來)라고 말하는데, 그는 자주 빛이 가장 높다고 인정한다. 불가는 노란색, 황금색을 좋아한다. 그러나 한 가지 색깔이다. 그것이 이 공간에서는 자색이지만, 저 공간에서는 황금색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간에서 본 검은 것은 다른 공간에서 보면 흰 것이며, 이쪽에서 본 것이 하얀 것이라도 저쪽에서 보면 시커멓고 이쪽에서는 푸른색이

지만, 저쪽에서는 붉은색이다. 전반 색깔은 모두 이렇게 부동한 공간에 부동한 나타남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마침 그런 상태 중에서 본 것은 바로 그런 색깔이다. 여러분은 좀 주의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때에 이 마(魔)가 아주 심하게 교란하기 때문이다. 나의 법신 대다수는 부처의 가사(袈裟)를 입고 있으며 남색 머리칼인데, 고슬고슬한 남색 머리로서 매우 짙은 청남색이다. 어떤 때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법신을 볼 수 있는데, 극히 특수하고 극히 특수한 것으로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을 잘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그가 만약 나라고 한다면 당신 마음속으로 나라고 여겨질 것이며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가 만약 내가 아니라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물음표를 찍게 될 것이다.

제자: 저는 이 법을 배운 지 이미 두 달 되었습니다. 이 두 달 사이에 저는 몇 십 년의 병이 다 없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법을 배운 목적은 바로 저의 업장(業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저는 참으로 편안했으며 약을 조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밖에 하나는, 가부좌 중에서 본